

제2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

1. 일시·장소 : '26. 3.16(월)~17(화), 일본 더오쿠라도쿄 * 3.16(월) 본회의
 - 환영리셉션 : 일본 경단련회관 2F 경단련홀 남(南)
 - 본 회의 : 일본 경단련회관 2F 경단련홀 북(北)
2. 주최기관 : (韓)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日)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3. 참가자 : 총 87명
 - 한국측 : 이인호 체어맨(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35명
 -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체어맨(아소시멘트 회장) 등 52명
4. 회의주제 :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
5. 회의 개최결과

-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상정 의제인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전문가회의로서의 기능 수행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지나 새로운 Chapter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까지 한일 양국이 쌓아 온 신뢰와 성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사회과제 및 경제정세 대응방안과 경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
 - (韓) 스타트업 금융분야 교류·협력, 시니어산업 전망 및 아젠다(AgeTech)
 - (日) 향후 한일협력 방안, 오키나와현 주요활동 소개
- 주요 제안내용
 - 거시적 측면에서의 한일협력 방안 및 미시적(스타트업) 측면에서의 경제연계를 위한 협력방안 제시
 - (韓) 한일 스타트업 생태계 및 교류협력 (① 스타트업 기업의 철저한 준비의 필요, ② 한일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민간 대기업을 통한 공동펀드 구성, ③ 한국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일본기업과의 협력, ④ 일본기업의 첨단기술을 한국에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 등)
 - (日) 앞으로의 한일협력 방안 (① Mini-Lateral적인 소규모 다국간 연계, ② 에너지 정책 (탄소중립, 수소), ③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④ EV(전기자동차), ⑤ 저출생고령화 및 교육 등)
 - 양국의 주요 사회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AgeTech)과 일본 오키나와현의 관광산업
 - (韓) 시니어산업 전망 및 핵심 아젠다 (① 양국 강점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글로벌 실증, 서비스·비즈니스모델 연구, ② 연구기관-기업-기술표준 협력까지 확장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 (日) 오키나와현의 주요활동 (① 오키나와현의 관광, 물산 관련 활동 소개, ② 지역 외교 및 제주도와와의 교류)

6.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 개회인사

○ (일본측 চে어맨 /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일 모두 새 정권이 수립되며 양국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조금 불안을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지향적인 대화와 협력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고 있음
- 지금까지 쌓아 올린 노력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국의 관계가 안정기인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이라는 테마로 회의를 진행하며 여러분으로부터 기탄없는 의견을 들으며 **전향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함**

○ (한국측 চে어맨 /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한일은 양국 정상 간에 공급망 안정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등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한일 FTA를 포함하여 **미래 통상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한일이 함께 지향해야 할 분명한 목표임**
-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에 에너지와 전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공통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에너지 공동 구매와 같은 협력 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에너지 조달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앞으로의 한·일 협력은 무역과 인적교류, 그리고 기술과 민생이 함께 작동하는 보다 입체적인 협력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양국간 신뢰를 재확인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신뢰를 구체적인 협력과 성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음. 오늘 진행하는 회의가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한일이 함께 Next Step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함**

○ (일본측 코디네이터 / 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준교수)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회의의 개최 취지임. **선대들이 쌓아온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 한일의 협력은 이루어짐**
- CPTPP 등 더 정교한 협력을 위한 구심점과 방안이 이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한일의 공동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 이 회의는 비공개 회의인만큼, 참가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통해서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시기를 소망함

- (한국측 코디네이터 / 이수철 GH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상임이사)
 -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한일경제인회의의 사전 전문가 회의 성격을 띠고 있음. 1999년 제1회 회의 개최 이후 한일 양국 간 관계는 교역,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숫자적으로 크게 향상되긴 하였으나, 한일 모두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 금액을 생각하면 아직 미미한 것이 사실임
 - **한일 FTA가 체결되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일 양국이 중동 OPEC(석유 수출국기구)을 견제할 수 있음.** 또한 양국을 합친 인구는 1.7억명이나 되고, GDP는 6조달러 이상으로 **세계 4위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됨.** 이 경제공동체가 실현이 된다면 호주, 싱가포르 등 국가는 자연스럽게 합류해 올 것임
 -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이슈에 좌우되면서 60주년까지 흘러왔지만, 지금 이 순간 부터는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한일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
- (일본측 주최기관 /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
 - 최근 양국 정권 모두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양국 관계도 대화를 정권 교체 후에도 계속하고 있음. 이는 기존 정권에서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과제에도 도전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경제면에서도 경제안보,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 등에서 **경쟁상대임과 동시에, 상호보완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민관 모두 공유하고 있음.** 이러한 좋은 조건들이 중복된 지금이야말로 퇴보하지 않는 한일관계를 확고히 해 나아가야 할 시기임
 - 정부가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 현재,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 ‘경제계’임.** 경제계가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지금의 호기를 살릴 수 있으며, 오늘 신산업무역회의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임
- (한국측 주최기관 /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오늘 회의가 26회째 회의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청년에 해당하는 만큼, 조금 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실이 있는 성숙한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임
 - 이 신산업무역회의는 거시적·총론적인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그러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노력해 나가겠음

□ 세션1 주제발표

- 발표자 : 가노 이사오(狩野 功) (공재)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 주 제 :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 (사건)

- 일본국제교류센터(JCIE) 소개
 -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다양한 민간 행위자에 의한 국가를 초월한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신념을 토대로 국내외 과제해결에 공헌
 - 한국과의 교류사업 :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협력
 - ① 1977년~1992년 : 한일지적교류회의 (총 10회)
 - ② 1988년~1990년 : 한일21세기위원회 (총 5회)
 - ③ 1993년~ : 한일포럼 * 김영삼 대통령-호소카와 총리 합의로 개최
- 한일포럼에서 중시하고 있는 점
 - 한일은 저출생고령화 과제를 공유하고 자유무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국익을 함께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2개국
 - 양국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비즈니스 핵심면에서는 상호보완관계
 - 양국간 정책적 대화는 국익을 위한 메디컬체크와 같은 것, 역사를 배워야만 함, 차세대 교류를 심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등
- 한일경제에서 중요한 공통점 (사건)
 - 경제 서플라이체인 : 미중 대립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한일이라는 공통인식
 - ① 경제 안전보장을 위한, 최적화된 글로벌 밸류체인
 - ② 서플라이체인 분석, 위기대응 : 경제제재가 시장가격을 폭등시킨 사례 등
 - ③ 제재 불가능한 예외적 사례 등
 - 민관의 연계 : 반도체처럼 약육강식의 시장에서는 민간만으로는 힘듦을 인식
 - 한일간 연계 :
 - ① Mini-Lateralism적인 소규모 다국간 연계
 - ② 에너지 정책 (탄소중립, 수소)
 - ③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전기자동차, 저출생고령화 및 교육 등
 - 2025년도 한일포럼의 주요 내용
 -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간 뿐만 아니라 3국간 및 다국간 협력을 진행하고, 한일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
 - 2025년 6월 1개월 간 실시된 ‘한일 전용 입국심사 레인’의 영구화
 - AI, 바이오, 에너지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진 분야의 지식 및 인재교류
 - 차세대 교류를 향한 ‘한일판 에라스무스’ 계획
 - 유럽의 학생교류 제도를 모델로 상호 단위 인정 및 인턴십을 통해 기술지식과 인재 교류의 발전을 목표

- 발표자 : 권순박(權純博) SBJ은행 대표이사
- 주 제 : 「한일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협력」

- SBJ은행 및 퓨처스랩 소개
 - SBJ은행은 1986년 3월 신한은행 글로벌 1호지점인 오사카지점 개설 후, 2009년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은행업 라이선스를 취득, SBJ은행 설립
 - SBJ은행 퓨처스랩 미션은 ‘한일 양국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의 공동성장’
 - ① 민관협력 통한 한일 가교역할 : 일본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프로그램 제공
 - ② 한일 벤처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 전용펀드(32억엔)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협력/투자 및 일본 스타트업의 기술기업에 초기투자 진행 중
 - ③ 한일 스타트업 교류회 개최 등
- 한일 경제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중요성과 경제적 의의
 - 디지털경제의 중추적 역할, 기술패권의 주역, 미래준비를 위한 경제의 주요 축

3. 한일 경제에 있어서 벤처·스타트업의 중요성과 경제적 의미는?

GDP 기여, 고용창출, 수출기여, 연구개발 등 미래준비를 위한 경제의 중요한 축

		
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GDP(잠정) 2,698조원 (1조 8662억 달러) • 벤처·스타트업 매출액 약 250조원 GDP의 약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GDP(잠정) 662조엔 (4조 2767억 달러) • 스타트업에 의한 GDP 창출액 22.3조엔 일본 전체 GDP의 약 4%, 2023년 대비 성장률 15% <small>*일본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의 현재 상태와 경제 산업성의 노력, 2025.12.2 발표</small>
고용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창출 약 96만명 - 4대 그룹 상시근로자수(약 74.6만명)를 넘어섬 <small>* 삼성, SK, 현대차, LG</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고용창출 87만 8,737명 <small>*2024.01.05 총무성 통계 및 STARTUP DB</smal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한국 수출총액 7,097억달러 • 벤처·스타트업 수출액 290억달러(잠정) 약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일본 수출총액 7,079억달러 (엔/달러 환율: 달러당 156.029엔 적용) • 스타트업의 수출액 약 2.4조엔 ~ 2.8조엔 추정 (160억~190억 달러) 2.2% ~ 2.6% <small>*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 표본조사와 디지털 무역 통계</small>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대 기업의 매출대비 R&D 투자비중 약 4.8% (2024년 기준) • 스타트업은 평균 12%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100억엔 이상 거대 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4.0% ~ 4.5% • 스타트업은 약 10%~ 12%

- 한일 양국의 벤처 육성 전략 비교
 - 韓 이재명 정권 : 단기지원을 넘어 기술, 지역, 인재, 투자 4대 축을 중심으로 4대 전략과 15개 과제 제시
 - ① AI 벤처 및 스타트업 1만개 육성
 - ② 유니콘 및 데카콘 50개사 창출
 - ③ 벤처 투자 연 40조원 달성 : 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혁신의 포용성을 확대
 - ④ 글로벌 벤처 Top4 진입 : 유니콘 및 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

- 日 다카이치 정권 :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강화, 첨단기술 패권·관점 스타트업 집중 육성
 - ① 17개 전략산업 (AI, 반도체, 조선, 방위, 양자, 우주항공 등) 집중 육성
 - ② 스타트업 전략 기금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입
 - ③ 스타트업 기술 국가가 보안 인증, 공공조달에서 우선 구매
 - ④ 지역 대학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각지에 산업 클러스터 전략적 형성
- 한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는 실리적 이익과 비즈니스적 공동성장 가능한 파트너
 - 상호보완적 기술과 시장구조 : 일본기업의 기술/제조에 한국 스타트업 협력 가능성 및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벤처에 투자하려는 한국 자본
 - 인재 선순환 : 한국 스타트업은 일본 전문가 영입과 Advisor 활용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상호투자 증가 (자본의 선순환) : 양국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증가로 자본의 공급과 협력 확대가 이어지고 있음
 - 동일한 목표·고민 :
 - ① 미중의 기술패권 강화와 뒤처지는 자국 기술
 - ② 양국 공통 사회문제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 한일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스타트업 : 스타트업 스스로 철저한 준비 필요 (일본진출 실패 기업 다수)
 - 정부 : 한일 정부가 마중물 역할의 투자 + 양국 민간 대기업이 LP(출자자)로 참여, 공동펀드 조성
 - 민간 크로스보더 :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 일본기업과 협력, 또한 일본기업의 첨단기술을 한국에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

□ 세션1 토론

-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신한 퓨처스랩을 무료로 진행하는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노력과 비용이 발생함. 그렇다면 이 퓨처스랩은 신한은행의 CSR 활동의 일환인지?
 - (답 권순박 SBJ은행 대표이사)
퓨처스랩은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행위로서, 투자한 스타트업이 잘 되면 결국 신한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활용하는 등 은행의 활동과 연결됨
- 아소 유타카 일본측 체어맨
 - 발표내용 중 구마모토에 TSMC가 설립된 이후 출산율이 1.9명으로 늘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출산율은 일본인인지, 아니면 대만인인지?
 - (답 가노 이사오 JCIE 이사장)
일본인 출산율 데이터이며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난 사람의 숫자임, TSMC가 설립된 이후 고용이 늘어나고 거주 환경이 향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함
-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대학 교수
 - 외국인 인재 수용과 관련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적극적 수용에 난색을 표함.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 (답 가노 이사오 JCIE 이사장)
우리가 흔히 보는 미디어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1천여명 정도의 사람에게, 그것도 시니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라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음. 일본국제교류재단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방으로 갈수록 외국인 인재 없이는 지역사회가 돌아가지 않으며 수용에 찬성임. 결국 서로 얼굴을 보며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답 권순박 SBJ은행 대표이사)
한국의 스타트업이 일본에 진출하는 경우 일본인 스태프 채용은 필수임. 양국 간에 정치적 이슈 등은 있지만 기업에서는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교류 중임
-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학 교수
 - 양국 모두 스타트업, 외국인 인재 등 공통문제가 있음. 경제인들이 인재교육 관련하여 교육센터 등을 함께 설립하자고 제안하여 필요한 인재를 함께 육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세키지마 료이치 한국미쓰이물산 사장
 - 양국 공통과제인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스타트업 등과 협력을 고려 중인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EU쪽에 더 눈이 가는 것이 현실임

- (답 권순박 SBJ은행 대표이사)

한국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없어서 일본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디지털 및 IT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본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일본정부의 시책과 연동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답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반대로 미국이나 EU에서는 통하는데 일본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는 스타트업도 많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경제협회 및 한일재단이 여러 사업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음

- (답 이수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한국은 과거 종합상사들이 다 사라짐. 일본의 경우 아직 종합상사가 많으므로 스타트업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그 다음에 금융에서 자금 쪽으로 도움을 준다면 서로 Win-Win 가능한 구조로 갈 수 있음

- (답 안도 마사미 JETRO서울사무소 소장)

JETRO서울사무소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과 일본의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등 외국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한국 지방도시에도 일본 스타트업 기업을 연결하고 있음

○ 아소 유타카 일본측 체어맨

- 지금까지의 지원에 더해, 조금 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대해 현장 경험자로서 제안할 사항이 있는지?

- (답 권순박 SBJ은행 대표이사)

민간 베이스로는 개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은 많음. 이런 개별적인 지원들을 경제단체가 하나로 모아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음

○ 이인호 한국측 체어맨

- 무역협회에서도 넥스트와이드라는 스타트업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실질적인 이익과 공동성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좋은 표현이라 생각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국가라는 경계선은 없으며, 돈과 실리가 있다면 국적과 장소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함

□ 세션2 주제발표

- 발표자 : 이나미네 나츠키(稲嶺 夏来)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
- 주 제 : 오키나와현 주요 활동 소개

- 오키나와현 개요
 - 인구 약 147만명으로 인구증가율 2위 (2.4%)
 - 제3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 한국노선은 5개 노선 7개 항공사
- 한국인의 오키나와현 관광 관련
 - 2024년 기준 순한국인의 일본 인바운드 중 5.1%로 47도도부현 중 제8위
 - 한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노선도 증편
 - SNS, 인플루언서, 여행박람회 등을 통해 한국에서 PR 중
- 한국-오키나와 간 물산
 - 對한국 수출품 : 흑설탕, 시쿠와사(오키나와 굴), 모즈쿠(해조류), 아와모리, 맥주
 - 한국에서의 PR : 물산전 출품, 오키나와 대교역회 개최 등
- 오키나와현의 지역교류
 - 류큐 시대부터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한국, 중국, 동남아 등과 교역,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교환
 - 지역외교 기본방침(2024.03월 책정) :
 - 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구축에 공헌하는 국제평화 창조 거점
 - ②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공동창조(共創) 거점
 - ③ 세계 도서(島嶼)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협력·공헌 거점
 - 제주도와의 교류 : 2024년 11월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제주포럼 참가 등
- 관광교류 확대, 경제교류 촉진, 지역외교를 통한 국제공헌을 통해, 인적교류 확충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 발표자 : 김 영 선(金英善)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AgeTech연구소 소장
- 주 제 : 「AgeTech-시니어산업 전망 및 핵심 아젠다」

- AgeTech의 개념
 - 시니어 및 이를 돌보는 돌봄인력을 위한 모든 기술(제품) 및 서비스
 - 시니어의 독립성과 연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성장엔진
 - AI와 결합되어 더 개인화되고 정밀화된 방향으로 시니어 삶 개선
 - AgeTech 3대 핵심분야
 - ① 시니어 자립생활기술(AIP Tech) : 주거, 정서지원, 재활, 이동, 영양, 여가, 금융

- ② 돌봄인력을 위한 돌봄기술(Care Tech) : 돌봄인력 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대비
- ③ AgeTech Literacy : 시니어가 기술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 연계 모델

○ 글로벌 AgeTech 메가트렌드

- 글로벌 AgeTech 산업은 2019년 1,440조원 → 2025년 4,536조원 → 2030년 약 12,770조원 전망 (연평균 약 23% 성장률)
- 시니어산업에서 **AI기반 AgeTech가 핵심트렌드** : AI기반 일상생활 지원(AI Home), AI+로봇 결합한 신체적 보조
- AgeTech 기술표준화 체계인 IEEE 2025년 출범 : 초고령사회 대응 및 시니어 삶의 질을 위해 AgeTech 표준개발 목적으로 이니셔티브 출범

○ 한국의 AgeTech 정책 현황 및 전망

- 한국은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AgeTech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국가지원을 위한 논의 진행**
- 2019년부터 돌봄로봇 R&D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같은 국가지원 사업 진행
- 일본은 2026년부터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DX)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 AgeTech 효과성 연구결과

(시니어의 경우)

- AgeTech 사용 시 **시니어의 노쇠(기능건강), 영양상태, 인지기능 긍정적 향상**
- 시니어의 주관적 고립감이 감소하여 **사회적 건강증진에 기여**

(돌봄인력의 경우)

- 한국 돌봄인력 중 50대~70대가 93.1%
- **이승보조로봇 사용 시 신체적 부담 63% 감소, 작업부하 7% 감소**

○ AgeTech-시니어산업의 한일협력을 위한 시사점

- 2030년 양국의 시니어 산업은 합계 약 1,500조원 정도로 고성장 전망
- 2024년 12월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은 AgeTech 중심 실버경제 생태계를 위한 국가차원의 본격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
- 고소득 시니어 증가율은 한국이 60%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 재산을 쓸 예정이고, 향후 지출규모를 2.6배 늘릴 것이라는 연구결과

○ 시니어산업의 한일협력을 위한 아젠다

- 양국의 강점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글로벌 실증, 서비스·비즈니스모델 연구**
ex) 일본의 돌봄로봇 R&D 연구를 한국에서 적용, 공동 돌봄로봇 개발 및 실증
- 양국 정부간 정책공유를 넘어, **연구기관-기업-기술표준 협력에까지 확장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 세션2 토론

-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고소득 시니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 (답 김영선 AgeTech연구소 소장)
개인이 지닌 소지금으로 요양보호(개호) 및 의료로봇 등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이며, 월 400만원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을 지칭함
- 아소 유타카 일본측 체어맨
 -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본인을 위해 돈을 더 쓰겠다는 시니어가 많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올바른 현상인건지?
 - (답 김영선 AgeTech연구소 소장)
한국은 시니어층의 자신을 위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산업 및 기업에서도 AgeTech 시장을 매우 큰 시장으로 보고 있음. 관련 연구조사도 진행한 적이 있음
- 이인호 한국측 체어맨
 - 한일 양국의 AgeTech 산업의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이 서로 Win-Win이 될 것이라 사료됨. 실제 기업 단위에서 표준화와 관련된 협력이 있었는지?
 - (답 김영선 AgeTech연구소 소장)
AgeTech 분야는 이머징마켓이며, 기업들과 사회가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단계임. 이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표준화 관련 협력은 없으나, 현재 시니어들이 혼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만들어졌으니, 그 관련 표준화도 제시될 것이라 생각함
-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작년 한일경제인회의 등에서 한일간 인적교류를 늘리기 위해 입국 수속절차를 짧게 하자는 이야기도 나옴. 오키나와현의 한국인 방문객 수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다니 다행이지만, 방문객 수를 2배 늘리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 (답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서울사무소 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교류라고 생각함. 입국의 간소화 조치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오키나와의 매력을 지속 발신하고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이수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 이번에 하네다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니 도착 후 40~50분이 걸림. 한일 FTA를 체결하고 EU처럼 여권만 내면 바로 통과하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양국의 인적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임

-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함. 노인의 나이를 75세로 올리면 다들 건강을 더 챙기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 김영선 AgeTech연구소 소장)
실제로 한국 정부 차원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음. 나이를 올리는 것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임.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65세, 사회적으로는 70~75세를 노인으로 부르고, 65세~75세는 시니어로 명칭하기 시작함. 또한, 빈곤한 시니어들도 많다 보니 65세 이상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음

□ 전체 토론

- 이영관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이사장
 - 한국도레이는 IMF 등 어려운 시기에도 도레이 본사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현재 연매출 3조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함
 - 이렇게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도레이 본사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역시 한국도레이-일본 본사 간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논의해 왔기 때문임
 - 한일 양국이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의사를 존중한다면, 더욱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함
- 아소 유타카 일본측 체어맨
 - 오키나와가 해외물류의 거점이라는 이미지는 없었는데 신선함. 실제로 현에서 물류허브로 만들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는지?
 - (답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서울사무소 소장)
육해공 관점에서 보면 공(空) 분야에서 물류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음. 위치적으로 대만 및 동남아시아로 나가기 용이하기 때문에, 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가타오카 토모히코 도레이인터내셔널 사장
 - AgeTech 발표에서 의료요양 로봇의 비즈니스화 부분은 아주 적절한 제안임. 대부분의 노인을 케어하는 그 자녀들 또한 노인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로 파견되어 오긴 하지만 그들 또한 국가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일본에 오지 않을 것임. 즉 인적자원으로 대응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결론이 나옴. 그러므로 양국의 공통과제로서, 신체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멘탈케어 부분도 고민해야 함
 - (답 김영선 AgeTech연구소 소장)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민을 안고 있음. 그런데 돌봄로봇을 만들다 보니, 사람의 말동무가 되거나 멘탈케어적 부분을 생각하면 AI를 탑재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AI 탑재가 쉽지 않고 상용화도 어려움. 돌봄로봇은 결국 신체적인 도움만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돌봄로봇 관련 스타트업이 연계해야 가능함

(ex. 일본은 로봇의 경량화 소재 및 관절, 한국은 AI 및 통신기술 등을 제작, 소프트웨어는 공동개발 등)

- 뜯구름 잡듯이 같이 개발해 나가자가 아닌, 명확한 목표개발 년수 등을 정해 개발을 시작해야 함

○ 아소 유타카 일본측 체어맨

- 한편으로 일본인의 건강장수 비결은 의외로 돈이 될 수 있음. 미국, EU에서 80세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대부분임. 반면 일본은 초등학생부터 영양소 등을 생각하며 성장시킴. 이러한 건강장수 비결을 AI와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한일 양국 1.7억명이 함께 건강장수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등)

○ 권순박 SBI은행 대표이사

- 오늘 발표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니, 한일은 각자 장단점이 있다는 생각이 듦. 바로 피드백이 나오고 돈이 되는 사업은 민간에서 각자 알아서 다 하고 있음. 시간이 걸리는 기술의 개발은 매우 필요하지만, 자금이 없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사장되어 가는 기술들을 한일 양국이 함께 관리를 하고 백업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 이수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 한일의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했을 때의 규모와 현재의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고 업무도 차이가 없음. 이것은 결국 한국통 일본인, 일본통 한국인의 부재가 심화됨을 뜻함
- 일본 종합상사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및 AgeTech 등 對한국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

○ 이미즈 하루히로 일간공업신문사 상담역

- 사람형 로봇은 현재 중국이 최강자이며 원가를 보면 한일은 중국에 이길 수 없음. 결국 키워드는 AI이며, AI를 사람형 로봇에 적용해야만 중국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생김
- (답 김영선 AgeTech연구소 소장)

적극적으로 공감함. 한국은 2027년에 2032년 로봇 탑재용 AI개발을 목표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중국은 피지컬적인 기술은 앞서 있으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탑재해 서비스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 생각함

○ 이인호 한국측 제어맨

- 돌봄로봇도 의약품과 같이 국각 가별로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술력이 좋다고 모든 국가에서 채용되지는 않을 것임. 따라서 기술표준화 등의 작업을 통해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답 김영선 AgeTech연구소 소장)

돌봄로봇은 의료기기가 아님.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기기라서 규제는 없으나, 방금 언급하신 단체 표준은 중요한 문제임. 국제표준의 First Mover가 되기 위한 한일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기업들에게 신산업분야로서 각광 받을 것임

○ 가노 이사오 JCIE 이사장

- 한일은 감정적인 부분에 공통점이 있음. 이 감정적인 부분을 잘 살린 제품을 만드는 것은 중국은 할 수 없는 영역임

- 각국의 데이터센터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 추운 곳에 위치함.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추위도 강한 편이니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답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정부의 보조가 있어야 함. 유치한 이후의 소요 비용이 매우 큼. 그리고 보안면에서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

○ 구리타 신이치 외무성 일한교류실장

- CPTPP 한국 가입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맹국이 되기 위한 여러 조건이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가입을 하겠다는 제안은 받은 바가 없음. 하지만 만약 가입을 한다면 한일 양국 협력을 위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상준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본부장

- 한일의 인구를 합치면 1.7억명으로 세계 8위의 인구이고, 양국 GDP를 합치면 약 6조달러로 세계 4위의 시장이 형성됨. 이는 한일 양국 협력이 얼마나 의미 있는 행위인지를 말해주고 있음

- 흔히 한일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가깝고도 중요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총괄·마무리

- (한국측 코디네이터 / 이수철 GH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상임이사)
 -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한일관계는 끈끈한 인간관계 없이는 비즈니스가 성립될 수 없음.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아사히그룹 회장이니, 맥주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 등의 방식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음
 - 한일은 같은 문화권에서 함께 오랫동안 생활해 왔음. 국민이 비슷한 감정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논의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함
- (일본측 코디네이터 / 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준교수)
 - 일본 다카이치 정권에서는 예산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며 전략적인 투자만 가능함. 오늘 발표한 내용 중 이 전략적 투자에 알맞은 내용이 많음
 -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국측 চে어맨 /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오늘 회의는 한일 양국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공동의 미래과제에 대해 함께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음
 - 공동의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사람과 사회의 기반을 함께 다져나갈 때에 비로소 한일협력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오늘 이 회의가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함
- (일본측 চে어맨 / 아소 유타카 회장)
 - 제1세션 두 분의 발표를 통해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스피드화, 구현화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제2세션에서 오키나와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이라는 내용도 신선했음
 - AgeTech는 새로운 산업으로 매우 좋아 보임. 경제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므로, 오늘 논의된 내용이 평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액션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함
- (한국측 주최기관 /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현장에 있는 우리가 논의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없는 회의로 전략함.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
 - 작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었는데, 오는 5월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도 내후년 60회를 맞이함. 제60회 경제인회의, 제30회 신산업무역회의 개최를 향해 사무국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음

○ (일본측 주최기관 /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

- 한일관계는 지금까지 수 많은 노력을 거쳐 신뢰와 실적이 쌓아왔음. ‘Next Step’이란 이 축적을 토대로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현장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경제계가 솔선수범하여 움직이는 것을 말함
- 오늘 이 자리에서 교환한 많은 의견들이 구체적인 비즈니스 및 인재의 교류, 차세대의 도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함

7. 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 평가

-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통해 양국 간 신뢰를 재확인하였고, 2026년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과 성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점에, 비즈니스 최전선에 있는 관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Next Step’을 밝기 위한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깊은 회의가 되었음
- 거시적 측면의 향후 한일협력 방안, 미시적 측면의 금융·스타트업 및 저출생 고령화 협력방안 등, 양국의 상호이익과 공동과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
-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奈良縣)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 중, 경제분야(경제 안전보장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금융과 스타트업)와 사회 분야(저출생고령화 공동대응, 관광)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
-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양국 경제인들의 실질적인 액션플랜 수립 등, 새로운 60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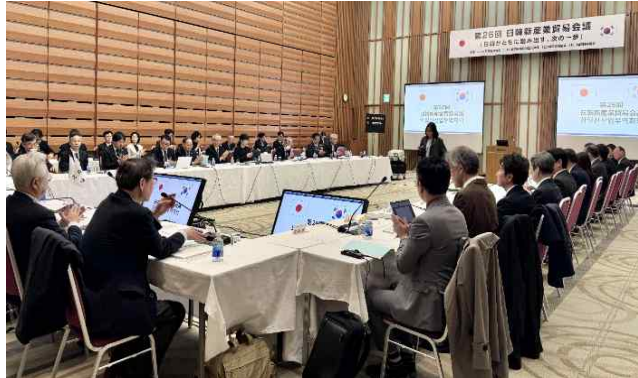
□ 후속조치

-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26.5.19~20, 도쿄)에서의 제2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문 작성
-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제발표자 확정 및 발표내용에 반영



무협,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 및 인적 교류, '에이지테크'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한국무역협회가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 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가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다"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호 회장은 이어 "에너지와 공급망, 그리고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역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에너지와 스타트업, 관광 및 인적 교류 그리고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 기술 기반 제품 및 서비스를 뜻하는 '에이지테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한층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매년 양국 경제계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의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토대로 한일 협력의 외연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CPTPP와 한일 FTA 협정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03.16. 이희진 기자 jebo@cbs.co.kr

한국무역협회, 도쿄서 韓·日 산업 공동 과제 점검 및 협력 방안 모색

16일 도쿄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논의 후 5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의제 상정



▲ 한국무역협회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회의 주제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로 양국 정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기반 제품 및 서비스 (에이지테크)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감소 문제 등 양국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박 SBI 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미래 경쟁력 창출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해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여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활발한 인적 왕래가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영선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에이지테크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의 난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토대로 한·일 협력의 외연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CPTPP와 한·일 FTA 협의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03.16. 김수한 기자 suhaniga@newdaily.co.kr

한·일 경제계 "지정학 위기 속 협력 확대"...신산업·공급망 논의
CPTPP·한일 FTA 등 미래 통상 질서 협력 필요성 공감대
공급망·에너지·스타트업·에이저테크 등 협력 방안 논의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교수,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일 경제계가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CP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역시 "고조되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 출범한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올해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저테크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이저테크는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 기반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감소 문제 등 양국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박 SBI 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미래 경쟁력 창출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하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 이후 양국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된 사례를 공유하며 활발한 인적 왕래가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에이저테크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의 난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토대로 한·일 협력의 외연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CPTPP와 한·일 FTA 협의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공급망 · 스타트업 협력 논의 에너지 · 관광 · 에이지테크 등 협력 확대 모색 논의 내용, 5월 한일경제인회의 안건 상정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교수,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주)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수철 (주)GH홀딩스 회장,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사진=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일본 경제계와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 협력 회의를 열었다. 공급망과 에너지, 스타트업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회의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렸으며 정부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 일상과 맞닿은 분야에서 협력이 축적될 때 한일 협력이 입체적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은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동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 행동으로 옮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지테크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순박 SBJ은행 대표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스타트업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 제조 기반을 결합한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 이후 한일 관광 교류가 빠르게 회복된 사례를 공유하며 인적 왕래 확대가 경제협력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경희대 교수는 에이지테크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초고령 사회 문제를 산업 혁신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무역협회는 이를 계기로 한일 협력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CPTPP와 한일 FTA 협의의 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韓 · 日 경제계 도쿄서 신산업 협력 논의… “공급망 · 에너지 공동 대응”



[서울=뉴스]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이인호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무역협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
 공급망 · 에너지 등 공동 과제 논의
 스타트업 관광 고령화 산업 협력 모색**

**한일 정부 기업 학계 관계자 80명 참석
 논의 결과 5월 한일경제인회의 상정 예정
 CPTPP · 한일 FTA 협력 동력 확대 기대**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 일본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과 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회의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부회장은 이어 "에너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가 아소시멘트 회장도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공급망과 에너지 스타트업 관광 인적교류 에이지테크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감소 문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박 SBI은행 대표이사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스타트업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결합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한일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된 사례를 소개하며 활발한 인적교류가 경제협력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에이지테크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초고령사회의 문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협력 범위를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CPTPP와 한일 FTA 협정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무협, '韓·日 신산업 무역회의' 서 에너지 등 협력 모색

에너지·공급망·스타트업·에이저테크 등 논의

한국무역협회가 일본 경제계와 만나 에너지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무협은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은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저테크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감소 문제 등 양국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박 SBI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미래 경쟁력 창출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했다.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 이후 양국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된 사례를 공유하며 활발한 인적 왕래가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에이저테크·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초고령 사회의 난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2026.03.16.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무협, 한일 경제계 '공급망·에너지·스타트업' 전방위 협력 시동

**CPTPP·양국 FTA 연계한 통상 질서 재편 논의...민생·산업 아우른 협력 강조
스타트업·에이지테크·관광까지 협력 확장...5월 한일경제인회의서 구체화**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 이하 무협)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다음 단계)'을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양국 정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 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CP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미래 통상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양국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주) 회장 역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전했다.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지테크(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위한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감소 문제 등 양국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박 SBI 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는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미래 경쟁력 창출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해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 이후 양국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된 사례를 공유해 활발한 인적 왕래가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에이지테크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초고령 사회의 난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무협은 이번 회의 성과를 토대로 한·일 협력의 외연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이를 CPTPP와 양국 FTA 협의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03.17. 박제성 기자

서울경제

“한일 경제협력 전환점, CPTPP·FTA 등 미래통상질서 설계해야”

16일 도쿄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히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역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저테크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권순박 SBI 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미래 경쟁력 창출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하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양국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된 사례를 공유하며 활발한 인적 왕래가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에이저테크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초고령사회의 난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토대로 한·일 협력의 외연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CPTPP와 한·일 FTA 협의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03.16.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무협 “한일 경제협력 중요한 전환점”

日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열려

한국무역협회가 16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글로벌 리스크에 따른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등 국민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해야 입체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역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

2026.03.17. 광소영 기자 soy@seoul.co.kr

세계비즈

무역협회,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

- 16일(월) 도쿄에서 개최, 산업·경제 분야 공동 과제 점검 및 협력 방안 모색
- 논의 결과는 오는 5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의제로 상정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지난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양국 정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다"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株) 회장 역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저테크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狩野 功)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 감소 문제 등 양국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박 SBI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미래 경쟁력 창출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하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이나미네 나츠키(稲嶺 夏来)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 이후 양국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된 사례를 공유하며 활발한 인적 왕래가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에이저테크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의 난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토대로 한·일 협력의 외연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CPTPP와 한·일 FTA 협의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도쿄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공급망 · · · 스타트업 협력 논의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KITA)가 일본 경제단체들과 함께 한·일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회의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을 맡은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 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논의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축적해야 양국 협력이 보다 입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 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 교류 ▲에이저테크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 감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순박 SBI은행 대표이사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스타업을 제시 하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결합한 협력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된 양국 관광 교류 사례를 소개하며 활발한 인적 교류가 경제 협력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에이저테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초고령 사회 문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 의제로 상정돼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협력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향후 CPTPP와 한·일 FTA 협정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 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양국 정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 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은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 교류, 에이지테크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 감소 문제 등 양국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박 SBI 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미래 경쟁력 창출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한다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양국 관광 교류가 빠르게 회복된 사례를 언급하며 활발한 인적 왕래가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에이지테크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초고령 사회의 난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3.16. 손정호 기자

무협,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산업·경제 협력 방안 모색

한일·일한경제협회 등 공동 주최

한일 정부·기업 관계자 80명 참석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으로 1999년 출범했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은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저테크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감소 문제 등 양국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박 SBI 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미래 경쟁력 창출의 핵심축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하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토대로 한일 협력의 외연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CPTPP와 한일 FTA 협정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03.16.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아주경제

한일 경제계 '넥스트 스텝' 모색 . . ."CPTPP·FTA 등 통상질서 함께 설계해야" 무협, 日 도쿄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



이인호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이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한일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 공동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 기업, 기관, 학계 등의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 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에너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주) 회장은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지테크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권순박 SBI 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미래 경쟁력 창출의 핵심 축인 스타트업에 주목해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도 상정될 예정이다.

무협 부회장 "한일 경제 협 중요 전환점...CPTPP·FTA 등 협력해야"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한일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 공동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출범했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 기업, 기관, 학계 등의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 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에너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주) 회장은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지테크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3.16.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무협 부회장 "한일 경험 중요한 전환점...CPTPP·FTA 협력“

한국무역협회는 오늘(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한일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 공동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출범했습니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 기업, 기관, 학계 등의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 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에너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주) 회장은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2026.03.16. 박규준 기자 abc84@sbs.co.kr

무협, 도쿄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사진=무협]

한국무역협회가 일본 도쿄에서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공급망, 에너지, 초고령화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16일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의장으로 나선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이를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역시 지정학적 불안감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공통의 도전에 맞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양국의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의제로는 △공급망 및 에너지 선점 △디지털·제조 기반 스타트업 육성 △관광 등 인적 교류 확대 △에이징테크(AgeTech·고령화 대응 첨단기술)를 활용한 초고령 사회 난제 해결 등이 다뤄졌다.

이날 도출된 주요 논의 결과는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양국 최대 민간 경제 교류 행사인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핵심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토대로 양국 협력의 외연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향후 CPTPP 및 한·일 FTA 협정의 실질적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17. 김경현 기자 bmokim@enewstoday.co.kr

무협,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미래 통상질서 공동 설계“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양국 정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은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지테크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감소 문제 등 양국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박 SBI 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미래 경쟁력 창출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하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 이후 양국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된 사례를 공유하며 활발한 인적 왕래가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에이지테크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의 난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토대로 한·일 협력의 외연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CPTPP와 한·일 FTA 협의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03.16. 김기덕 기자

한·일 경제계, 공급망·에너지 협력 논의...신산업 협력 의제 확대

도쿄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

공급망·에너지·스타트업·에이저테크 협력 논의

논의 결과 5월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의제로 상정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교수,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주)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수철 (주)GH홀딩스 회장,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공급망과 에너지,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회의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입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도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동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저테크(AgeTech)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 감소 문제 등 양국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박 SBI은행 대표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스타트업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결합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된 양국 관광 교류 사례를 소개하며 인적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에이저테크 산업이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과 새로운 산업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상정돼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협력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CPTPP와 한·일 FTA 협력 논의의 동력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03.16. 권태성 기자 tskwon@etoday.co.kr

공급망부터 에이지테크까지...韓·日 경제계, 도쿄서 미래 신산업 머리 맞댔다



16일(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교수,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KITA 제공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초고령화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신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출범한 이 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핵심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 기업, 학계 관계자 80명이 참석해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지테크(AgeTech) 등의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했다.

한국 측 의장을 맡은 이인호 KITA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대표이사 역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협력 제안도 이어졌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제안했다. 권순박 SBI은행 대표이사는 기술 패권 시대의 미래 경쟁력으로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융합한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관광 교류 회복 사례를 통해 인적 왕래가 경제협력의 밑거름임을 역설했으며, 김영선 경희대 교수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초고령 사회의 난제를 산업 혁신의 기회로 바꾸는 에이지테크 협력을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의제들은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2026.03.16.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무협,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산업·경제 분야 공동 과제 점검

日 도쿄서 개최...양국 정부, 기업, 기관 80여 명 참석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양국 정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은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저테크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감소 문제 등 양국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박 SBI 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미래 경쟁력 창출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하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 이후 양국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된 사례를 공유하며 활발한 인적 왕래가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에이저테크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의 난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무협은 이번 회의 성과를 토대로 한·일 협력의 외연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CPTPP와 한·일 FTA 협의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03.1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한·일 경제계 "에너지·공급망 협력" 한목소리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



한국무역협회가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과 일본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모인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등에서 한일 양국이 입체적인 협력을 해야한다는데 양국 경제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부회장은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간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민생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도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양국 정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2026.03.16. 김학재 기자

무협, 도쿄서 '제26회 韓-日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도쿄에 모였다.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는 물론 에이지테크(AgeTech) 등 신산업 전반에서 협력의 외연을 넓히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1999년 출범한 이 회의는 양국 경제계의 핵심 민간 협력 플랫폼으로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한·일 FTA(자유무역협정)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협력이 축적돼야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아우르는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역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지테크 분야의 다각도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가노 이사오(狩野 功)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인구감소 등 양국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며 권순박 SBI 은행(신한은행 일본법인) 대표이사는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결합한 스타트업 협력 모델을 공유했다.

이나미네 나츠키(稲嶺 夏来)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활발한 인적 왕래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김영선 경희대노인학과 교수는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에이지테크'를 통해 초고령 사회의 난제를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오는 5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돼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회의 성과를 CPTPP와 한·일 FTA 협정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03.16. 홍지현 기자

한일 경제계, 도쿄서 공급망·신산업 협력 모색

KITA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5월 한일경제인회의 안건 상정

한국무역협회(KITA)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출범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의 공동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회의는 한·일 양국의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NEXT STEP’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미래 통상 질서를 함께 설계하고 그 성과를 실질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와 공급망, 연결 인프라 등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분야에서 협력이 축적될 때 한·일 협력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생과 산업을 아우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도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에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저테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은 공급망과 에너지, 인구감소 문제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를 결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박 SBJ은행 대표이사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스타트업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일본의 제조 기반을 결합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또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양국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활발한 인적 교류가 경제 협력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초고령 사회 문제를 새로운 산업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협력을 민생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CPTPP와 한·일 FTA 협정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03.17.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시 간	프로그램(안)
3월 16일(월)	
09:00~11:05	• 한국측 대표단 출국 : 김포공항→하네다공항 (KE2101)
11:45~12:20 (35)	• 이동 : 하네다공항 → 경단련회관 (버스)
13:00~13:30 (30)	• 접수 : 2층 경단련홀 북(北)
13:30~13:02 (02)	• 개회
13:32~13:35 (03)	• 기념촬영
13:35~13:45 (10)	《 개회인사 : 양국 চে어맨 》
13:35~13:40 (05)	▶ (日)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대표이사 회장·(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13:40~13:45 (05)	▶ (韓) 이 인 호(李仁浩) (사)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13:45~14:00 (15)	《 양국 코디네이터·추천기관 인사 》
13:45~13:49 (04)	▶ (日) 이와다레 요시히코(岩垂 好彦) 코디네이터 / 오비린대학 준교수
13:49~13:53 (04)	▶ (韓) 이 수 철(李洙喆) 코디네이터 / (주)GH Holdings 회장
13:53~13:56 (03)	▶ (日)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13:56~14:00 (04)	▶ (韓) 서 석 송(徐錫崇)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14:00~15:20 (80)	《 세션(Ⅰ) : 미래를 개척하는 경제연계 》
14:00~14:20 (20)	▶ 일본측 발표① : 가노 이사오(狩野 功) (공재)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발표주제 : 「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사건) 비즈니스 경험, 국제 교류, 양국간 정책대화 경험을 통해 」
14:20~14:40 (20)	▶ 한국측 발표① : 권 순 박(權純博) (주)SBJ은행 대표이사 발표주제 : 「 한일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협력 」
14:40~15:10 (30)	▶ 질의응답·의견교환
15:15~15:20 (05)	▶ 코디네이터 세션(Ⅰ) 요약
15:20~15:30 (10)	《 커피브레이크 》
15:30~16:50 (80)	《 세션(Ⅱ) :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공감과 지속가능한 사회 》
15:30~15:50 (20)	▶ 일본측 발표 : 이나미네 나츠키(稲嶺 夏来)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 발표주제 : 「 오키나와현 주요 활동 소개 」
16:50~16:10 (20)	▶ 한국측 발표 : 김 영 선(金英善)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AgeTech연구소 소장 발표주제 : 「 “초고령사회 한·일 협력 티핑포인트2026” AgeTech-시니어산업 전망 및 핵심아젠다 」
16:10~16:40 (30)	▶ 질의응답·의견교환
16:45~16:50 (05)	▶ 코디네이터 세션(Ⅱ) 요약
16:50~17:40 (50)	《 전체토론 》
17:40~18:00 (20)	《 양국총괄 》
17:40~17:43 (03)	▶ (韓) 이 수 철(李洙喆) 코디네이터 / (주)GH Holdings 회장
17:43~17:46 (03)	▶ (日) 이와다레 요시히코(岩垂 好彦) 코디네이터 / 오비린대학 준교수
17:46~17:49 (03)	▶ (韓) 이 인 호(李仁浩) (사)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17:49~17:52 (03)	▶ (日)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대표이사 회장·(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17:52~17:55 (03)	▶ (韓) 서 석 송(徐錫崇)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17:55~17:58 (03)	▶ (日)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18:00~19:30 (90)	《 한일 공동주최 리셉션 》 2층 경단련홀 남(南)
19:40~19:50	• 이동 : 경단련회관 → KKR호텔 도쿄 (버스)
3월 17일(화)	
09:25~10:00 (35)	• 이동 : KKR호텔 도쿄 → 하네다공항 (버스)
12:25~15:00	• 한국측 대표단 귀국 : 하네다공항 → 김포공항 (KE2102)

첨부3

제2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양국 참가위원 명단

□ 한국측 (35명)

NO	소속/부서	직 함	성 명			비 고
			한글	한자	영문	
1	(사)한국무역협회	상 부 회 근 장	이 인 호	李仁浩	LEE Inho	체어맨 Chairman
2	(주)GH홀딩스	회 장	이 수 철	李洙喆	LEE Soo-Chul	코디네이터 Coordinator
3	(사)한일경제협회	상 부 회 근 장	서 석 송	徐錫崇	SEO Seok-Soong	주최기관 대 표
4	SBJ은행	대표이사	권 순 박	權純博	KWEON Sun-Bag	1세션 발표자
5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 AgeTech 연구소	교수·소장	김 영 선	金英善	KIM Young-Sun	2세션 발표자
6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상 무 관	정 경 록	鄭京祿	JUNG Kyung-Rok	Observer
7	교세이국제특허정보(주)	대 표	박 남 숙	朴南淑	PARK Nam-Sook	
8	도시바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주)	사 장	사토 요시카즈	佐藤義和	SATO Yoshikazu	
9	도시바 일렉트로닉스 코리아(주)	부 사 장	김 정 한	金貞漢	KIM Jung-Han	
10	동원재팬(주)	법 인 장	하 기 석	河基錫	HA Ki-Seok	
11	드라이브텍(주)	C E O	최 윤 용	崔潤龍	CHOI Yun-Yong	
12	(주)산옥스	대표이사	이 옥 순	李玉順	LEE Ok-Soon	
13	(주)산옥스	부 장	이 우 상	李雨相	LEE Woo-Sang	
14	삼성재팬(주)	부 장	황 진 오	黃眞吾	HWANG Jin-O	
15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 단 장	홍 만 표	洪萬杓	HONG Man-Pyo	
16	(주)아하	대표이사 회 장	구 기 도	丘冀徒	KOO Gi-Do	
17	SBJ은행 Future's Lab	팀 장	김 영 민	金榮敏	KIM Young-Min	
18	SK JAPAN	부 사 장	이 정 환	李政桓	LEE Jung-Hwan	
19	요코하마시립대학	교 수	국 중 호	鞠重鎬	KOOK Joong-Ho	
20	(주)티리로케이션	대 표	박 종 선	朴鍾善	PARK Jong-Sun	

NO	소속/부서	직 함	성 명			비 고
			한글	한자	영문	
21	한국경제인협회 동경사무소	소 장	이 주 현	李周玆	LEE Ju-Hyun	
22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이 사 장	이 영 관	李泳官	LEE Young-Kwan	
23	한국무역보험공사 동경지사	지 사 장	유 용 호	劉容鎬	YU Yong-Ho	
24	(사)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본부	본 부 장· 상 무	이 상 준	李尚竣	LEE Sang-Jun	
25	(사)한국무역협회	차 장	김 민 성	金旻性	KIM Min-Sung	
26	(사)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본부	대 리	윤 지 민	尹智玟	YOON Ji-Min	
27	(사)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지 부 장	홍 치 의	洪治義	HONG Isaac	
28	(사)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팀 장	김 여 진	金麗珍	KIM Ryeo-Jin	
29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이 사 장	이 창 기	李昌起	LEE Chang-Ki	
30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주 임	최 재 호	崔載皓	CHOI Jae-Ho	
31	(주)한영넥스	대표이사	한 상 민	韓尙旻	HAN Sang-Min	
32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차 장	노 미 나	盧мина	NOH Mi-Na	사무국
33	(사)한일경제협회	사무국장	서 광 현	徐光賢	SUH Kwang-Hyun	사무국
34	(사)한일경제협회	차 장	이 유 경	李裕卿	LEE You-Kyong	사무국
35	(사)한일경제협회	연 구 원	박 경 숙	朴景淑	PARK Kyeong-Suk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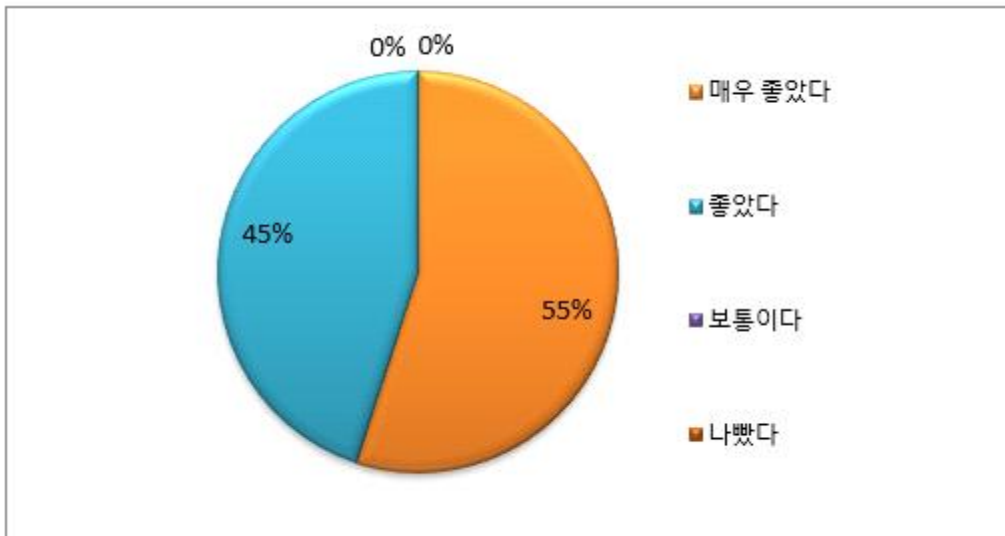
□ 일본측 (52명)

일본측 작성 순

NO	소속/부서	직 함	성 명			비고
			한글	한자	영문	
1	아소시멘트(주) (일사)일한경제협회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아소 유타카	麻生 泰	ASO Yutaka	체어맨 Chairman
2	오비린대학 비즈니스매니지먼트학부	준교수	이와다레 요시히코	岩垂 好彦	IWADARE Yoshihiko	코디네이터 Coordinator
3	(공재)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가노 이사오	狩野 功	KANO Isao	1세션 발표자
4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	이나미네 나츠키	稲嶺 夏来	INAMINE Natsuki	2세션 발표자
5	(주)일간공업신문사	상담역	이미즈 하루히로	井水 治博	IMIZU Haruhiro	
6	(주)호텔오쿠라도쿄	대표이사 회장	나루세 마사하루	成瀬 正治	NARUSE Masaharu	
7	도레이인터내셔널(주)	대표이사 사장	가타오카 토모히코	片岡 智彦	KATAOKA Tomohiko	
8	아사히그룹홀딩스(주) 비서실	시니어매니저	도우마 다케히로	當麻 剛大	TOUMA Takehiro	
9	마루베니(주) 글로벌총괄부 중국·동아시아과	매니저	다케우치 다카에	北村 聡	TAKEUCHI Takae	
10	스미토모상사(주) 글로벌전략추진부 동아시아팀	주임	아오야마 히나코	青山 日向子	AOYAMA Hinako	
11	노무라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한국	대표이사	야마사키 유지	山崎 裕二	YAMASAKI Yuji	
12	한국미쓰이물산 서울재팬클럽	대표이사사장 이사장	세키지마 료이치	関島 亮一	SEKIJIMA Ryoichi	
13	미쓰이물산(주) 경영기획부 글로벌업무실	차장	가와니시 코이치	川西 孝一	KAWANISHI Koichi	
14	공익사단법인 경제동우회 정책조사부	부장	히구치 마키코	樋口 麻紀子	HIGUCHI Makiko	
15	공익사단법인 경제동우회 정책조사부	어소시에이트	고미 마유코	五味 真由子	GOMI Mayuko	
16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국제협력본부	주간	가와사키 시게하루	川崎 茂治	KAWASAKI Shigeharu	
17	일본상공회의소 국제부	부부장	니시자와 마사즈미	西澤 正純	NISHIZAWA Masazumi	
18	일본상공회의소 국제부	과장보좌	하시즈메 타카노리	橋爪 孝徳	HASHIZUME Takanori	
19	(주)미쓰비시UFJ은행 경영기획부	정보전략실장	다키가와 하루노부	瀧川 晴信	TAKIGAWA Harunobu	
20	전일본공수(주) 서울지점	지점장	시라토리 코지	白鳥 康二	SHIRATORI Koji	
21	ANA홀딩스(주) 그룹경영전략실 경영기획부	부장	가지키 하루부미	梶木 晴史	KAJIKI Harubumi	
22	일본항공(주) 한국지점	지점장	가도와키 토시미츠	門脇 俊光	KADOWAKI Toshimitsu	
23	일본항공(주) 종합정책부	부장대리	히가시하라 요시마사	東原 祥匡	HIGASHIHARA Yoshimasa	
24	도요타통상(주) 섭외부 기획총괄실	과장보	아오키 켄지로	青木 研次郎	AOKI Kenjiro	
25	(주)롯데	주사	오우치 사토시	大内 哲志	OUCHI Satoshi	
26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사무소	소장	안도 마사미	安藤 雅巳	ANDO Masami	

NO	소속/부서	직 함	성 명			비고
			한글	한자	영문	
27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고하리 스스무	小針 進	KOHARI Susumu	
28	(공사)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이주인 아츠시	伊集院 敦	IJUI Atsushi	
29	교도통신사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사토 다이스케	佐藤 大介	SATO Daisuke	
30	일본경제신문사	상급논설위원 겸 편집위원	미네기시 히로시	峯岸 博	MINEGISHI Hiroshi	
31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부소장	김 윤 주	金 玟 珠	KIM Yunjoo	
32	오키나와현 도쿄사무소	부소장	우에하라 미야코	上原 美也子	UEHARA Miyako	
33	오키나와현 도쿄사무소 수도권 영업과	과장	우치마 토루	内間 亨	UCHIMA Toru	
34	오키나와현 도쿄사무소	주간	타이라 유지	平良 友嗣	TAIRA Yuji	
35	오키나와현 도쿄사무소 수도권영업과		오오시로 유미	大城 由美	OOSHIRO Yumi	
36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제1과	일한교류실장	구리타 신이치	栗田 伸一	KURITA Shinichi	
37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제1과	과장보좌	하야노 마이	早野 まい	HAYANO Mai	
38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제1과	외교실무연수원	스즈키 타이키	鈴木 大輝	SUZUKI Taiki	
39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한국실	실장	하라 미츠루	原 充	HARA Mitsuru	
40	(일재)다카마도노미야 기념 일한교류기금	사무국장	야마다 도시히로	山田 俊宏	Yamada Toshihiro	
41	(일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우치다 토시아키	内田 敏明	UCHIDA Toshiaki	
42	(일사)일한경제협회	상무이사	나카야마 요시아키	中山 喜昭	NAKAYAMA Yoshiaki	
43	(일사)일한경제협회	상무이사	츠츠미 노리히데	堤 儀秀	TSUTSUMI Norihide	
44	(일사)일한경제협회	청소년교류센터장	김 유 정	金 侑 貞	KIM Yu-Jung	
45	(일사)일한경제협회	총무부장	가지야마 치카코	梶山 智香子	KAJIYAMA Chikako	
46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JK-BIC장	오카모토 준	岡本 峻	OKAMOTO Jun	
47	(일사)일한경제협회 조사·홍보부		나리타 마미	成田 真美	NARITA Mami	
48	(일사)일한경제협회 총무부		이사와 마사코	伊沢 雅子	ISAWA Masako	
49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스도 슌	須藤 俊	SUDO Shun	
50	통역		최 은 주	崔 銀 珠	CHOI Eun-Ju	
51	통역		나가토모 에이코	長友 英子	NAGATOMO Eiko	
52	통역		이 춘 경	李 春 京	LEE Chun-Kyoung	

1. 제2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20명)



2. 좋았다면 그 이유는?

- 한일 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점
- 발표내용 및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킹
- 미래지향적이고 향후 양국이 해야 할 일과 방향이 명확함
- 한일 협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됨
-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점
- 한일 경제협력에 관심과 의리가 큰 참가자들이 한 데 모여 한일간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매우 고무적이고 발전적이었음
- 준비에 많은 성의가 느껴짐
- 적극적인 토론 및 협력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짐
- 행사 전, 후 준비가 원활했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짐
- 행사 내용도 전반적으로 유익했고, 간결하고 필요한 일정으로 구성됨
- 다양한 주제에 맞춘 토론이 유익미했음
- 유익한 발표로 인해 많이 배웠음

3. 아쉬웠던 점은?

- 명단에 연락 메일 정보 공유 희망
- 단체사진 촬영이 없었던 점
- 교류 얘기로 맛있는 것을 거의 못 먹었음

4. 회의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의견)

- 한일 인재양성 및 교류가 가능한 센터 설립 및 한일 기술기업들의 협력 및 공동연구 활성화 상기의 활동이 협회를 통해 활성화되기를 희망함
- 이번 회의를 통해 스타트업, 한일 경제협력 등 많은 정보를 얻었고, 매끄러운 일정 진행에 감사. 다음 회의 때도 일정이 된다면 참가 신청하겠음
- 아주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고, 향후 지속이 되도록 정기적인 교류 모임을 한국에서도 진행하길 희망함
- 회의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제안의 내용이 정부와 언론 등에 전달되어 실천에 힘을 싣고자 함
-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
- 준비하신 협회분들 수고와 노력에 감사
-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싶고, 5월 한일경제인회의에도 꼭 참석하겠음

첨부5 제2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전경



<회의전경>



<주요인사 기념촬영>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양국 체어맨>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양국 대표인사>



<본회의 전경①>



<본회의 전경②>



<개회인사 : 이인호 한국측 체어맨>



<개회인사 : 아소 유타카 일본측 체어맨>



<코디네이터 인사 :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코디네이터 인사 : 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교수>



<주최기관 인사 :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주최기관 인사 :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제1세션 : 권순박 SBI은행 대표이사>



<제1세션 : 가노 이사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제2세션 :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AgeTech연구소 소장>



<제2세션 : 이나미네 나츠키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소장>



<질의응답① :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질의응답② : 아소 유타카 일본측 체어맨>



<질의응답③ : 고히리 스스무 시즈오카대학 교수>



<질의응답④ : 국중호 요코하마대학 교수>



<질의응답⑤ : 세키지마 료이치 한국미쓰이물산 사장>



<질의응답⑥ : 안도 마사미 JETRO 서울사무소 소장>



<전체토론①> : 이영관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이사장



<전체토론②> : 가타오카 토모히코 도레이인터네셔널 사장



<전체토론③> : 이미즈 하루히로 일간공업신문사 상담역



<전체토론④> : 구리타 신이치 외무성 일한교류실장



<전체토론⑤> : 이상준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본부장



<전체토론 전경>



<전체토론⑥> :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AgeTech연구소 소장



<전체토론⑦> : 권순박 SBI은행 대표이사



<리셉션 : 인사말하는 이인호 한국측 চে어맨>



<리셉션 : 인사말하는 아소 유타카 일본측 চে어맨>



<리셉션 전경①>



<리셉션 전경②>